

“전기차·MINI 마음놓고 타세요” BMW, 무상점검 등 서비스 강화

26일까지 ‘닥터·홈커밍’ 워크 전 차종 40가지 항목 무상점검 엔진오일 등 패키지 상품 할인도



닥터 BMW 워크

국내 수입차 업계 1위의 BMW그룹 코리아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보낸 BMW와 MINI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정비비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A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BMW그룹 코리아가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는 ‘닥터 BMW 워크’ 및 ‘MINI 홈커밍 워크’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AS 캠페인이다.

BMW그룹 코리아는 행사기간 동안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가 무료인 BMW(5년/10만km) 및 MINI(5년/6만km) 전 차종을 대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각종 오일 및 필터류, 배터리, 차량 실내외 위험물 등 외부 장착물 40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수전기차의 경우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시작한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와 냉각 시스템, 고전압 셀모듈 등의 육안 점검 및 고장 코드 조회 등을 진행하며, 타이어와 냉각수 상태 등도 추가로 확인한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상 수리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BMW 및 MINI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 시 오리지널 부품 및 공임을 20% 할인하여 제공하며 브랜드 오리지널 타이어를 구매하여 장착하는 고객에게는 타이어 가격의 10%, 공임의 최대 50%를 할인해 준다.

더불어 엔진오일과 필터 패키지, 브레이크 패키지, 하체 패키지, 냉각 시스템 패키지 등 총 12가지로 준비된 패키지 상품을 30% 할인 금액(부품 및 공임 포함)으로 제공한다.

기존 블랙박스를 BMW·MINI ACE 3.0 프로 블랙박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부품 및 공임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업그레이드 장착 가능 여부는 서비스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BMW·MINI

프리미엄 소화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AS 캠페인을 이용하는 고객은 My BMW나 MINI 앱을 활용한 ‘서비스 라이브(Service Live)’ 기능을 통해 내차의 정비 현황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진행 여부 결정이 가능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AS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사은품 혜택도 푸짐하게 준비했다. BMW 고객은 150만원 이상, MINI 고객은 100만원 이상 결제 시 BMW·MINI 프리미엄 소화기를 선물로 제공하며,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서 서비스상담 예약 및 입고 시 BMW·MINI 장우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중, 임단협 진통… 총파업 위기

업계 최고 대우에도 노사 갈등 여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며 노사 상생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HD현대중공업은 노사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사측이 첫 제시안보다 높은 금액을 담은 2차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인상폭을 문제삼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5일 기본급 10만2000원(이하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

금 400만원 등을 제시했다가 노조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총파업을 벌이자 지난달 25일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내놨다. 2차 제시안은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상품권 30만원, 중대재해 미발생 성과금 신설 등으로 기존 제시안보다 기본급 인상과 상품권 등이 추가됐지만 노조는 이 역시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동종업계 최고의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사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생산 차질에 따른 인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STX, 중남미에 국산 카지노 장비 수출

강원랜드 독점 공급 계약 체결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강원랜드와 협력해 중남미 지역에 국산 카지노 장비를 정식 수출한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기업이다.

STX와 강원랜드는 강원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카지노 장비 독점 공급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본 계약을 통해 STX는 중남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계약은 우루과이에 강원랜드의 자체 개발 슬롯머신 ‘KL Saber’ 40대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TX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STX의



(왼쪽부터) STX 박상준 대표,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이 ‘카지노 장비 독점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TX

첫 카지노 시장 진출로써 기대가 크며,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국내 기업들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국내 최초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용 ISL 장비 개발 (위성간 레이저 통신)

1Gbps 속도로 인터넷 원거리 접속 미주·유럽 등 해외시장 적극 진출

한화시스템이 국내 기업 최초로 저궤도 위성용 ISL(위성간 레이저 통신) 장비 개발 및 성능시험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수행한 ‘저궤도 위성용 ISL 장비의 첫 중거리 통신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우주 공간에 비해 통신 장애 요소와 날씨·지형 변수가 많은 지상시험을 바탕으로 1Gbps 전송 속도의 인터넷 원거리 접속에 성공함으로써 레이저 통

신 운용성을 1차 검증한 것이다.

ISL은 위성의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 받으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초고속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군집으로 운용되는 저궤도 위성간 통신이 실현되면, 지상 기지국 1곳 만으로도 세계 어디서나 국경을 넘어 고속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지상 통신이 갖고 있던 산악·밀림·해양·극지대 등 오지 곳곳과 전쟁 시 통신단절 등의 문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다.

ISL 기술이 적용된 저궤도 위성은 스

마트폰 무선통신에 쓰이는 전파가 아닌, 빛의 영역인 ‘레이저’를 이용해 통신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이나 끊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미국·독일·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 확보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아마존 등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을 중심으로 우주 인터넷 실현을 위한 ‘ISL 탑재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미주·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차대성 기자 iumds@

기아, 해양 폐플라스틱 소재 트렁크 라이너 공개

유럽 등 일부지역 한정 판매

기아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차량 용품을 공개했다.

기아는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용품인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는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차량 용품이다.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을 40% 사용했으며 기존 트렁크 라이너만큼 우수한 내구성과 품질을 자랑한다.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는 유럽 등 일부 지역에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기아와 오션클린업이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

삼성전기, MLCC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근무복 재활용… 내년 전면 도입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 과정 중 발생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성공했다.

삼성전기는 MLCC 제조 과정에 사용된 폐기물을 재활용한 근무복 제작에 성공해, 이달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고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의미한다.

재활용으로 제작한 근무복을 공인기관에서 피부 자극성 테스트, 유해 성분 검사 및 세탁 수차례 변화율, 일광 및 땀 복합 견뢰도 등 다양한 평가를 통과한 후 3개월간 임직원 착용감 테스트도 거쳤다.

삼성전기는 재활용 근무복 300벌을 제작해 이달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근무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갤럭시 S24 울트라, 美 소비자 평가 1위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최신 스마트폰 평가에서 애플의 아이폰16 프로 맥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스마트폰 랭킹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총점 87점, 1위로 평가했다. 같은 점수를 받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컨슈머리포트의 평가 항목 10개 중 신뢰도, 만족도,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구성, 성능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5점을 받았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사용 편의성과 통화에서 4점을 받아 갤럭시 S24 울트라보다 총점에서 1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기자 hyem@